

노인단독가구의 부엌공간 실태와 개조에 관한 연구

Current Situation and Modification of Kitchen Space by Elderly-headed Household

권오정* 김미희** 하해화***
Kwon, Oh-Jung Kim, Mi-Hee Ha, Haewha

Abstract

Kitchen space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for the elderly. Modification of kitchen space for improving safety and independence for older residents is very important factor for aging-in-pl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modification of kitchen space by elderly-headed household. The sample included 108 respondents over the age 65 who consisted of elderly-couple or single person household with homeownership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present incidence and recognition of future need in kitchen modification were identified. Changes in kitchen space made tended to be nonstructural or relatively inexpensive item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several ideas for improving current physical problems of kitchen space to support daily living of older residents.

Keywords: Elderly-headed Household, Kitchen Space, Modification of Kitchen Space, Residential Modification

주요어: 노인단독가구, 부엌공간, 부엌개조, 주택개조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특성 중에 두드러진 현상은 노인 인구증가율을 앞서고 있는 노인단독가구¹⁾의 증가 속도이다. 노인가구가 자녀와 별거하여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1975년에는 7.0%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44.9%에 이르고 있다.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인적부양체계가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해야하는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

노인부양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율은 높으나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택 유형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00).

따라서 이러한 열악한 주거수준을 갖고 있는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노후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적, 생활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조하는 것은 노인의 주거생활 지원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가 주택 내에서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다른 공간에 비해 개조²⁾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인 부엌(권오정, 10096; 권오정 외, 2001)을 대상으로 노인단독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부엌 공간 실태와 개조여부, 만족도 및 요구를 파악하여 노인가구의 안전성, 자립성, 쾌적성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부엌을 개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 중 단독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된 조사도구를 가지고 훈련된 조사원 2인이 1조가 되어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와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부엌을 실측 조사하는 방법도 병행하여 본 조사(2005년 4월 25일 - 6월 25일)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108가구로부터 자료가 수집되었다.

조사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여

* 정희원(주저자)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전공 교수, Ph.D
** 정희원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이학박사, 전남대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정희원 건국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1) 노인단독가구라 함은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혹은 부부만으로 독립된 가구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뜻한다.

2) 본 연구에서 개조라 함은 노인거주자가 주거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수월하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증개축이나 구조변경, 마감재 교체나 보조기구나 설비의 설치가 포함되고 이와 함께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용도의 복지용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및 교체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면접 시에는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력, 수입, 주 수입원, 가구유형), 건강특성(주관적 건강상태, 노인질병), 신체치수, 주택관련 특성(주거유형, 주택규모, 거주기간, 현 주택에서의 향후 거주여부, 현 주택 계속 거주이유, 하루 중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 개조관련 특성(현 주택에서의 향후 노후생활 및 대처방안, 현 주택의 개조의사 및 이유, 개조여부, 개조 후 만족도, 개조 필요성)을 조사하였고 조사원의 실측 및 관찰조사를 통해 부엌의 물리적 환경 실태(단차, 출입문, 마감처리, 설비, 수납 및 작업대, 생활지원용품, 식탁)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의 통계처리를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건강 특성

조사대상자는 여자(72.2%)가 더 많았고 연령은 65세부터 80세까지 비교적 고루 분포하면서 평균 연령은 73.3세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12.1%에 그쳤고 정규교육을 받은 비율이 87.9%로 이중 대학교 이상의 교육은 받은 고학력자의 비율도 7.1%에 이르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노인의 정규교육 받은 비율인 56.7%(통계청, 2000)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소득 면에서는 전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913,832원이었고 이러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 수입원은 자녀의 보조(27.7%), 부동산 운영/임대수입(24.8%), 연금/저축(24.8%) 순으로 나타나 1/4이상의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자녀의 경제적 도움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구 유형에서는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노인의 절반 이상(57.2%)이 건강이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앓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은 고혈압(57.8%), 관절염(48.6%), 만성요통(29.4%), 당뇨(2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절염이나 만성 요통과 같은 질병은 앓고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물건을 잡거나 기구를 작동하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질병에 대응한 주택의 개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조사대상자의 주거관련 특성

조사대상 노인들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9.4%) 그 다음이 다세대주택(28.3%), 아파트(16.2%), 연립주택·빌라(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인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평균 규모는 25.9평이었다. 현재의 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약 19.5년으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절반인 50.4%가 하루 중 20시간 이상을 집에서 보낸다고 응답함으로써 하루 중 약 4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곧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을 위하여 이들의 생활과 요구에 맞도록 주택을 계획해 줄 필요성과 중요성이 큼을 말해주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의 88.9%는 앞으로도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주된 이유로 '내 집 이어서'(56.5%)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는 많은 응답자들이 앞으로도 내 집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aging in place)를 강조하였다. 부엌의 공간구성형태 면에서 부엌-식당의 연결형태는 DK형 즉 부엌과 식당이 하나의 공간으로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가 98.5%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2. 현 주택에서의 노후생활 대처방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향후 노후생활에 편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50.5%, 공동주택 거주자의 65.5%인 반면에 단독주택거주자는 대다수(77.0%)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현재 주택을 개조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불편하지만 주택 개조를 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65.2%)인 반면에 공동주택거주자는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았다'(46.2%)로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향후 현 주택을 개조할 의사에서는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거의 과반수 정도가 노후생활에 대처하기 위해 개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개조의사가 없는 나머지 과반수의 개조의사가 없는 이유를 보면 단독주택거주자의 경우에는 '개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33.3%)이고 공동주택 거주자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33.3%)로 그 주된 이유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단독주택 거주자들은 훨씬 더 불편함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 없이 불편함을 참고 살고 있으며 개조할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하고 개조를 번거롭게 여기면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부엌의 개조 여부, 만족도 및 개조 요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부엌공간의 개조 여부와 이에 따른 개조 후 만족도, 그리고 향후 개조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6개 유형(단차, 출입문, 마감처리, 설비, 수납 및 작업대, 생활지원용품, 식탁)의 20개 개조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가구에서 부엌의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는 몇 개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비율이 높지 않았다.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부엌공간에서 주로 개조가 많이 행해진 항목들은 설비유형에 해당하는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62.0%), '온수시설설치'(58.3%), '보조난방기구 설치'(30.6%)이었다.

이밖에도 부엌작업대의 윗벽에 보조선반 설치(21.3%), 출입문에서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19.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조가 행해졌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부엌에서 가사작업을 할 때 편리성과 적정 온도확보를 통한 실내환경의 쾌적성, 그리고 자주 쓰는 가사용품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의 확보와 관련된 개조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표 1> 현 주택의 개조의사 및 개조이유 N=108

항 목		전체	단독주택	공동주택
		빈도(%)	빈도(%)	빈도(%)
현 주택을 개조하지 않은 이유	경제적 여유가 없다	26(49.1)	15(65.2)	10(38.5)
	불편하지 않다	18(34.0)	4(17.4)	12(46.2)
	과정이 번거롭다	3(5.7)	3(13.0)	0(0.0)
	개조에 돈을 쓰기 싫다	2(3.8)	1(4.3)	1(3.8)
	기타	4(7.5)	0(0.0)	3(11.5)
소 계		53(100.0)	23(100.0)	26(100.0)
향후 현 주택 개조의사	예	45(45.5)	20(52.6)	24(45.3)
	아니오	53(53.5)	18(47.4)	29(54.7)
	소 계	99(100.0)	38(100.0)	53(100.0)
향후 주택 개조 의사가 없는 이유	참고할 만하다	14(26.4)	4(22.2)	8(27.6)
	번거롭다	10(18.9)	6(33.3)	4(13.8)
	개조해도 많이 편해지지 않을 것이다	1(1.9)	0(0.0)	1(3.4)
	개조에 돈을 쓰기 싫다	15(28.3)	3(16.7)	10(34.5)
	기타	13(24.5)	5(27.8)	6(20.7)
소 계		53(100.0)	18(100.0)	29(100.0)

부엌공간에서 각 개조 항목별로 개조를 한 후 어느 정도 만족하였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개조실행빈도가 높았던 항목 중에서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3.82점), '온수시설설치'(3.80점), '보조난방기구 설치'(3.31점)는 개조 후 만족도 역시 높아 개조에 대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비록 개조실행빈도는 낮아도 개조 후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조절', '작업대와 대비되는 색의 바닥갈래 사용')이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러한 개조항목에서 좀 더 적극적인 개조가 실행될 수 있어야 하겠다.

각 개조항목별로 향후 개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화재가스 경보장치 설치'(60.2%),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41.7%),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설치'(41.7%), '수도꼭지에 자동온도 조절 장치 설치'(36.1%), '실내의 단차제거'(35.2%), '부엌작업대의 발디딤판 사용(27.8%)', '부엌작업대의 높이 조절'(27.8%) 등에서 개조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항목들은 주로 안전성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것이 많아 조사대상 노인들은 개조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용에 편리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부엌의 물리적 환경실태

부엌의 물리적 환경 실태에 대해 실측 및 관찰조사를 한 결과를 전체주택과 주택유형별(단독주택과 공동주택)로 분석 결과 중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부엌의 개조여부, 개조 후 만족도 및 개조요구 N=108

개조유형	항목	개조여부*	개조후 만족도	향후 개조 요구
		빈도(%)	평균**	빈도(%)
단차	실내의 단차제거	8(7.4)	2.93	38(35.2)
	부엌작업대 밑에 발 디딤판 사용	11(10.2)	2.29	30(27.8)
출입문	조작하기 쉬운 창문/문손잡이 설치	21(19.4)	3.06	45(41.7)
마감처리	미끄럼방지용 바닥재 사용	12(11.1)	2.50	45(41.7)
	벽, 벽장, 가구를 대비되는 색으로 바꿈	7(6.5)	3.00	19(17.6)
	작업대와 대비되는 색의 바닥갈래 사용	11(10.2)	3.18	17(15.7)
설비	스위치나 조절장치의 높이조절	8(7.4)	3.33	21(19.4)
	화재/가스경보 장치 설치	14(13.0)	2.60	65(60.2)
	조작하기 쉬운 레버형 수도꼭지 설치	67(62.0)	3.82	11(10.2)
	수도꼭지에 자동 온도조절장치 설치	6(5.6)	3.00	39(36.1)
	온수시설 설치	63(58.3)	3.80	4(3.7)
	보조 난방기구 설치	33(30.6)	3.31	17(15.7)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판(램프스위치)사용	6(5.6)	3.00	20(18.5)
수납 및 작업대	부엌의 하부수납장이나 수납장문 제거	0(0.0)	0	3(2.8)
	부엌작업대 높이조절	11(10.2)	3.08	30(27.8)
	부엌작업대의 윗벽에 보조선반 설치	23(21.3)	3.00	7(6.5)
생활지원용품	물건나르기 편한 바퀴달린 웨건 사용	4(3.7)	3.00	10(9.3)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가구 사용	10(9.3)	2.77	9(8.3)
	손잡이가 편한 서랍장사용	11(10.2)	3.00	20(18.5)
	바퀴달린 작업용 의자 마련(부엌,현관 등)	18(16.7)	2.50	11(10.2)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부엌공간에서 해당항목을 개조 한 경우를 정리한 것임

** 5점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1) 단차

부엌공간은 주로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두 공간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가 35.6%이었고 단차의 범위는 10-450mm이었으며 단차가 30mm가 넘는 경우가 공동주택은 36.3%에 그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82.4%로 조사되었다.

2) 출입문

부엌에 인접공간과의 출입문이 있는 경우는 전체 주택의 29.9%, 단독주택은 51.4%, 공동주택은 18.6%이었다. 출입문의 종류는 주로 미닫이문이었으며 손잡이 종류는 주로 고리형 손잡이(전체: 27.8%, 단독주택: 45.5%) 또는 홈형 손잡이(전체: 33.3%, 단독주택: 27.8%)이었다. 이러한 고리형과 홈형의 손잡이는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형태이었다. 전반적으로 문을 열고 닫기에 가장 편리한 레버형 손잡이의 사용은 단독주택에서는 한 사례로 없어 단독주택의 문손잡이의 교체가 시급한 개조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출입문의 손잡이가 휠체어 사용 시에도 바람직한 높이인 800-900mm 이하에 설치된 경우는 전체주택의 반 정도(55.6%)이었고 이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는 30.1%로 선 자세에서 문을 여닫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향후 보조 보행기구를 사용 시에는 출입문의 개폐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마감처리

부엌의 바닥, 벽, 천장의 마감처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 마감재는 천장이나 벽은 주로 벽지마감이 많았고 바닥은 PVC류의 비닐 장판이나 우드류가 많았으나 타일이나 시멘트몰탈 마감인 경우도 있었다. 주택유형에 따라서는 바닥, 벽, 천장의 마감처리 상태가 단독주택이 좀 더 불량한 상황이었다.

4) 설비

부엌의 설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명 스위치의 높이는 권장기준인 800-1200mm 이하에 설치된 경우가 전체주택의 과반수 정도(55.8%)이었고 이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가 43.2%로 밝혀짐으로써 부엌의 조명 스위치의 높이는 기준치보다 높게 설치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콘센트가 부엌에 없는 경우는 적었으며 콘센트의 설치 높이에 있어서는 권장기준치(400-1200mm 이하)에 있는 경우가 64.3%이었고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1200mm초과)도 16.7%나 되었다.

위급상황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설비들, 즉 화재경보기, 가스감지기, 외부와의 비상연락장치 등의 설치는 극히 미비하였다. 부엌의 바닥난방 상태는 바닥난방이 되는 경우가 전체주택의 71.6%이고 안되는 경우가 28.4%이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부엌바닥에 난방이 되는 사례가 하나도 없었고 모든 조사대상 단독주택이 바닥난방이 되지 않았다. 개수대에 설치된 수전은 냉온수일체형(84.7%)인 경우가 많았고 수전의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86.4%)이 가

장 많았다.

5) 수납 및 부엌작업대

작업대의 높이는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850mm 초과)가 전체의 약1/4이상(25.7%)이었고 상부 수납장의 경우에도 상부수납장의 가장 아랫부분의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보면 기준치 이상(1200mm 초과)인 경우가 대다수(84.4%)로 상부 수납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업대의 높이나 상부수납장의 높이가 높아 보조발판을 놓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10.1%정도가 있었다. 이는 노인의 신장(여성노인 응답자의 평균 신장: 151.5cm이었음)에 비해 작업대의 높이가 높은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작업대의 깊이는 기준치보다 좁은 경우(600mm 이하)가 40.4%이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작업대의 깊이가 600mm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91.9%)이어서 단독주택의 부엌작업대의 깊이가 좁은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리가 아플 경우에 작업대 앞에 의자나 앉거나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 아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주택의 24.8%, 단독주택의 12.8%에 그쳤다. 수전형태는 전체주택의 84.7%, 단독주택의 74%가 레버형 손잡이 형태를 갖춘 수전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열대는 가열기구로 주로 가스렌지가 사용되고 있었고 쿡탑의 높이도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850mm 초과)가 전체 주택의 반 정도(53.7%)이어서 노인, 특히 여성노인의 신장을 고려해볼 때 가열대 사용 시에 음식물 조리 상황의 확인에 불편함이 있고 화상의 가능성도 높은 위험한 상황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대다수 주택에서 설치되어 있는 가스밸브는 휠체어 사용 시에도 접근이 가능한 높이인 1200mm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 주택의 반 이상(54.9%)이어서 향후 보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스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큰 상황을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열대에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주택의 65.1%이었는데 단독주택은 이보다도 설치율이 낮아서 51.3%에 그쳤다. 후드가 있다고 해도 기존의 기성제품의 대다수가 후드 자체에 조작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손을 뻗쳐 닿을 수 있는 높이(1200mm 이하)에 설치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전체: 2.9%, 단독주택: 0%), 손을 완전히 쭉 뻗어야 닿을 수 있는 높은 위치(1200-1600mm 이하)에 조작판이 있는 경우는 61.4%이었고 쉽게 접근이 어려운 상황(1600mm 초과)인 경우도 1/3이상(35.7%)이었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로 가열대 후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6) 생활지원용품과 식탁

식사공간에서 입식식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주택이 과반수 정도(49.5%)이었고 단독주택은 이보다 약간 사용율이 낮은 43.6%이었다. 나머지 경우에는 상을 이용하

여 부엌에서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로 향후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관절염 등으로 좌식으로 앉아 식사하는 것이 점점 더 불편해 질 가능성과 밥상을 다른 공간에 차릴 경우에 힘이 드는 문제점들을 고려해볼 때 식탁을 사용한 식사공간의 부재는 안전하고 자립적인 식생활에 문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식탁이 있는 경우에 식탁의 높이는 기준치(650-750mm 미만)보다 높은 경우가 전체의 약1/3이상(37.0%)이었고 식탁의자의 좌판 높이도 기준치(400-450mm 미만)보다 높은 경우가 과반수를 넘은 것(59.2%)을 볼 때 현재 사용 중인 식탁의 높이와 의자의 높이가 높아 사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면접조사 및 실측조사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개선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1) 노인단독가구 중에서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가 현재 주택에서의 노후생활에 불편할 것임을 더 높게 예측하고 있었으나 이에 비해 대처방안은 '그냥 참고 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많이 갖고 있었고 주택개조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여력부족과 개조로 인한 번거로움이 부담스러워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단독주택 노인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조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조 지원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 2) 부엌의 개조항목들에 대한 개조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개조 후 만족도가 낮았던 항목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노인자신 자신의 신체적, 경제적조건,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개조가 적절히 시행되도록 도와주는 개조정보제공, 개조관련물품 공급, 개조상담 창구 신설 및 상담사 양성 개조전문업체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3) 실내의 단차제거는 면접조사에서도 개조 요구도가 높았던 항목이었는데 실측조사에서도 특히 단독주택에서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아 개조가 필요한 상황임이 파악되었다. 실내공간에서의 단차는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게 하므로 단차가 30mm이하인 경우에는 문지방을 없애는 방법으로 개조하고, 단차가 30m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단의 높이와 인접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중간 발판을 설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개조방법을 택할 수 있다.
- 4) 부엌의 출입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손잡이의 형태이었다. 문손잡이는 손의 힘이 약해지고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문을 열고 닫기가 쉬운 레버형 손잡이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손잡이 교체는 개조에 필수적인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 5) 노후생활에서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좀 더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사나 조리 등의 부엌행위 시에 전반적으로 입식생활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6) 각종 스위치와 콘센트의 형태, 높이, 위치, 개수 그리고 가스밸브나 부엌의 배기 후드 스위치의 높이는 노인 생활의 자립성, 안전성, 편리성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가전제품이나 조명등의 사용이 많은 부엌에는 적절한 높이와 위치에 스위치와 콘센트를 설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조사항이다. 특히 스위치는 손놀림이 미숙하거나 어두울 때 쉽게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조작판이 넓고 미 작동 시에 불빛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램프 스위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장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콘센트를 추가로 만들거나 연장코드를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콘센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전기공사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연장코드의 안전 설치가 보다 바람직하다.

7) 부엌의 바닥 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안고 있었는데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보다 심각하였다. 이는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노인들의 건강문제 발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식을 하거나 먹을 때 큰 불편을 준다. 노인가구의 주택 개조에는 난방설비를 하거나 보조 난방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8) 노후에는 노인의 습성 상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기 때문에 점점 수납할 물품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바닥이나 작업대위,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위 등에 쌓아놓은 부엌용품들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통행에도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수납자의 높이조절이나 수납장의 내부 구성에 대한 개조가 필요하다. 부엌가구의 손잡이도 사용이 불편한 형태가 주로 많았으므로 사용이 용이한 레버형 손잡이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특히 상부 수납장의 높이는 노인들의 키에 비해 대다수의 조사대상주택에서 높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업대와 상부수납장 사이에 부가적인 선반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가적인 수납용 선반의 설치와 더불어 최대한 상부수납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개조가 필요하다. 한편, 차후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구를 사용할 때에 대비하여 적절한 하부수납장의 높이나 휠체어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오정(1997).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조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7(1), pp.1-17.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2005).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자료.
 통계청(2002). 한국주택학회,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자료집
 통계청(2002). 사회통계조사보고서